

## 죽음 부른 '술 다이어트'

### 30대 여성, 10여일 술만 마시다 사망

10여 일 동안 술만 마시며 무리한 '술 다이어트'를 하던 3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음식물을 먹은 뒤 숨졌다.

지난 8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북동 S모텔에서 문모(여·33)씨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함께 방을 쓰던 친구 주모(여·3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주씨 등 친구들은 "숨진 문씨가 평소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10일 전부터는 '다이어트를 한다'며 밥도 전혀 먹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비만 체질의 문씨는 최근 '술 다이어트' 이후 몸무게가 5kg 이상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숨진 당일인 8일 새벽 중학교 동창에게 "배고프니 만나자"고 전화, 2시간여 동안 서구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소갈비에 소주를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상쾌한 아침의원' 박태석 원장은 "술에 의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의 암모니아 성분을 분해하지 못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선암사 폭력' 경호업체 대표 긴급체포

순천경찰은 9일 순천 선암사 폭력사태(본보 10월9일자 7면)와 관련, 태고종(太古宗) 총무원 측이 동원한 경기도 수원 B경호업체 대표 장모(30)씨를 경비업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순천 선암사에서 총무원 측 관계자들에 대한 경호업무를 맡은 자사 경호직원들이 폭력 등 과도한 행위를 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경기지방경찰청에 이 업체의 경호업무 허가 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앞서 8일 선암사 폭력사태 현장에서 연행한 경호업체 직원과 승려 등 26명을 발췌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폭력행위가 심한 3~4명 정도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 측은 이날 오전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암사 전 주지인 권금용 스님 측은 그러나 "선암사 재직(在籍) 승 전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총무원의 결정은 따를 수 없다"면서 "물리력은 사용하지 않고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北 핵실험 강행

### ■ 광주·전남 주민 반응

# 충격·우려... "평화적으로 풀어야"

## 공들여 온 민간교류 무너질까 큰 걱정

### "미, 핵시설 폭격 전쟁 나는것 아니냐"

북한이 9일 핵 실험을 강행,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전남지역 민들은 충격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면서 북핵이 하루빨리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TV를 통해 뉴스속보를 보며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서로 상반된 입장과 보인 보수·진보단체들도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회사원 김영현(45)씨는 "북한이 얼마 핵실험을 강행할 줄 몰랐다"며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아 전쟁이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지회장 박승현) 박오성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로 북한이 더 이상 포용과 화해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에 일체의 대북지원을 모두 중단하고 강한 압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회사원 김영현(45)씨는 "북한이 얼마 핵실험을 강행할 줄 몰랐다"며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아 전쟁이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지회장 박승현) 박오성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로 북한이 더 이상 포용과 화해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에 일체의 대북지원을 모두 중단하고 강한 압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상임대표 윤장현 등 6인) 김영삼 사무국장은 "북한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깨뜨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그동안 공들여온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이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전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높았다.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기광서 교수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군사행동을 한다면 전면전보다는 핵 시설을 요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네티즌들도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북한의 도발로 아시아 지역에 핵개발 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것' '외환위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민을 떠나는 게 속 편하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해결책으로는 북한이 탈퇴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고, 핵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북한 전문가인 최영관 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은 모두 예측하고 있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른데 대해 모두 경악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발육인 北送 시멘트

북핵실험이 실시된 9일, 북한 수해지역에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선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은 강원도 동해항에 아적된 채 선적을 기다리는 시멘트. /연합뉴스

## 광주 보훈병원장 취임 연기 소동

### 상이군경회원 50여명, 병원장 폭행·집기 파손

#### 취임식 초청 제외 항의

광주 보훈병원장 취임식 초청을 둘러싸고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병원장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한때 소란을 피웠다.

9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광주 보훈병원에 '대한민국상이군경

회 광주시지부'(지부장 직무대행 김형대) 회원 50여 명이 정창영(57) 신임 병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회원들은 정 원장을 만나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것을 강하게 항의하면서 원장실 거울 등 집기를 부렸다. 이들은 또 정 원장의 목을 1~2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광주 광산경찰은 1개 중대 100여 명을 파견했으나, 상이군경회 회원들은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뒤 철수했다. '대한고엽제 전우회 광주지부'(지부장 이건호) 회원 50여 명도 이날 오후 2시께 보훈병원을 방문, 초청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항의했다.

이날 소동으로 취임식은 무기연기됐으며, 정 원장은 9~10일 휴가 신청서를 냈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정 원장이 추석 연휴 직전 임명장을 받아 보훈단체에 따라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조만간 이들을 초청해 다시 취임식을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상이군경회 측은 그러나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는) 간부들이 모두 외부에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 개인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내에 있는 CCTV(폐쇄회로 회화)를 통해 폭력을 휘두른 상이군경회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병원 측이 고소를 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의대 장기발달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원장은 지난 4일 전임 김영 원장이 서울 보훈병원장으로 전보되면서 광주 보훈병원장에 임명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Cartier advertisement with contact number 1.062-360-1340.

Advertisement for a service with contact number 062-367-9000.

배우 장진영 "CF 수익금 배분" 소송



영화배우 장진영(사진)씨가 전(前) 소속사인 C엔터테인먼트와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수익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피고와 수익금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원)엔·(주)효성·(주)LG생활건강 등 광고 모델 출연료 3억 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소속사 대표인 이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Upgrade 세기보청기' (Upgrade Hearing Aid) featuring a red background, a hearing aid device, and promotional text.